

1619년 深河戰役의 미결 지리 고증

李勝洙 · 金一煥 · 申春浩 · 林文星*

(漢陽大 教授 · 東國大 教授 · 韓國外大 講師 · 중국역사지리 전문가)

要約 및 抄錄

이승수 · 김일환 · 신춘호 · 임문성, 2019, 1619년 심하전역의 미결 지리 고증, 183 : 171~201 이 논문은 1619년 3월에 있었던 심하전역(深河戰役)의 현장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 지리 고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구간은 조선군이 우모령(牛毛嶺) 행군을 시작한 '平頂山'부터 조선군 포로가 끌려가 머문 '奴城(赫圖阿拉城) 밖 10리 지점'까지이다. 2월 28일에서 3월 6일에 이르는 8일 동안 이 지리공간에서는, 오늘날 돌아보아도 가슴 아픈, 그리고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도 지나치지 않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비극의 장소를 정확하게 비정함으로써, 희미해진 역사를 환기하고 반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본고의 취지이다. 문헌 검토와 현지 조사에 현장 탐문을 더하여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深河가 강이 아닌 마을의 이름일 가능성을 확인했다. 8,9천 명의 조선군이 전사하고, 나머지 4,5천 군사들이 피신했던 장소는 釜山과 그 아래 벌판으로 비정했다. 조선군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길을 처음으로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투로 발생한 고통과 비애는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이 전투를 외면·망각했던 권력의 무능과 위선은 여전하다. 고통과 비애의 말을 들어주고, 무능과 위선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본고를 작성한 이유이다.

※核心語: 牛毛嶺, 深河, 釜山, 富車 들판, 家哈嶺, 李民窶, 柵中日錄

I. 머리말

이 논문은 1619년 3월에 있었던 深河戰役의 현장 중 일부 구간의 정밀

* 李勝洙(교신저자) · 金一煥(제1저자) · 申春浩(공동저자) · 林文星(공동저자)

지리 고증을 목표로 한다. 이 구간은 1만 3천 조선군이 牛毛嶺 행군을 시작한 ‘平頂山’에서, 생존 4, 5천 조선군 포로가 끌려가 머문 ‘奴城(赫圖阿拉城) 밖 10 리 지점’ 사이이다. 2월 28일에서 3월 6일에 이르는 여드레 동안 이 지리공간에서는, 400년 뒤인 오늘날 돌아보아도 매우 가슴 아픈, 그리고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도 지나치지 않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능한 권력에 의해 거의 의도적으로 망각되다시피 했고, 술한 고통은 물론이요 교훈적 의미마저도 산실되었다. 이 비극의 장소를 정확하게 비정함으로써, 희미해진 역사를 환기하고 나아가 반추하는 계기를 마련 하자는 것이 본고의 취지이다.

深河戰役의 현장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를 추리면 아래와 같다.

- ① 遼寧大學 歷史系, 『柵中日錄 校釋』, 1978.
- ② 王從安, 「桓仁縣境最大的古戰場 - 細說薩爾滸大戰的東線之戰」, 『滿族研究』, 2001 제3기.
- ③ 이승수, 「심하전역의 현장 답사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41>,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7.
- ④ 傅波·王平魯·張德玉, 「薩爾滸戰役北路·東路戰場遺跡考察紀實」, 『撫順七千年』, 2012.3.4.
http://www.fs7000.com/news/kaogu/201203/1149_8.html
- ⑤ 『建州女眞』 제6집 「歲月風雲」, 2012.11.1)
- ⑥ 권혁래, 신춘호 외, 「심하전투 서사의 문학지리학적 고찰-문학지도와 경관, 서사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1, 우리문학회, 2015.
- ⑦ 박현규, 「姜弘立 조선군의 深河 참전지리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63, 한중인문학회, 2019.

①은 고증이 소루하고 몇 군데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지리 공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②는 문헌과

1) 本溪市の 여섯 기관이 연합 제작한 15분 다크로,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docuchina.cn/2013/09/03/VIDE1378177044599335.shtml>

유물을 함께 검토하여 深河戰役의 현장을 집중적으로 고증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신뢰할만한 논문이다. 이를 기점으로 심화된 논의가 가능해졌다.²⁾ ⑤는 ②를 비롯한 청나라 초기 연구 성과에 현지 조사를 더하여 제작한 영상으로, 牛毛寨와 瓦爾喀什寨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③, ⑥, ⑦은 국내의 연구 성과이다. ③은 처음으로 압록강에서 界蕃城에 이르는 深河戰役 관련 모든 현장을 조명하였는데, 세부 지점과 동선에 있어서는 소략한 점들이 있다. ⑥과 ⑦³⁾은 여러 면에서 앞 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몇 군데 이견이 드러났다. ④는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보여주는데, ②의 성과를 확인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중국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深河戰役은 薩爾滸戰役의 일부이며, 현장에 대한 관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촉발된 것이다.⁴⁾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深河戰役의 여러 현장들이 고증되었다. 그럼에도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이 있고, 중요 지점을 두고 의견들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으며,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중국 연구자에 의해 밝혀졌으나 국내에 소개할 부분도 있고, 그동안 검토되지 않은 문헌 자료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새로 조명하고, 이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조절하며, 설명이 불완전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다.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논단하지 않고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의 범주를 좁혔으며, 明軍의 전투 현장⁵⁾ 또한 거론하지 않는다. 深河戰役의

2) 이 논문은 富國良 主編(1999), 『桓仁史話』, 桓仁滿族自治縣地方志編纂室, pp.86~96에 실린 「薩爾滸戰役東路戰場」을 보완한 것이다. 王從安 선생은 桓仁縣의 사학자로 생존 중(95세)이다.

3) 논자(이승수)는 이 발표(2018년 11월 24일)의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오래 미뤄두었던 숙제를 할 엄두를 내게 되었다.

4) 이 밖에 중세사료강독회 율김(2014), 『柵中日錄-1619년 심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서해문집)에도 각주를 통해 현재 위치를 비정하고, 사진을 첨부했다.

5) 薩爾滸戰役의 경과와 지리를 개괄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선행 연구가 도움이 된다. 武國卿(2016), 『中國戰爭史 7』, 人民出版社, pp.52~71; 劉彥紅(2012), 『薩爾滸大戰與本溪』, <滿族研究> 107.

경위와 의의에 대해서도 재론하지 않을 것이다.⁶⁾

본 논의의 기본 텍스트는 도원수 姜弘立의 종사관으로 참전했던 李民寯(1573~1649)의 『柵中日錄』⁷⁾이며, 조선과 청대의 몇몇 문헌들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논고를 작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논의를 통해 역사의 수면 아래 가라앉은 深河戰役의 사소한 진실 하나라도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II. 주립과 불안 속의 진군로, 牛毛嶺 길(2월 28일~3월 1일)

조선군은 1619년 2월 19일에 시작하여 23일 도강을 완료했다. 명군 主將 楊鎬는 네 갈래로 군대를 출발시켜 3월 2일 後金の 근거지인 허투알라(赫圖阿拉)성을 동시에 들이치는 分攻合擊 작전을 펼쳤다. 조선군은 도강 이후 寬奠에서 출발한 東路軍 摠兵 劉綎의 지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劉綎은 3월 2일 기일을 맞추기 위해 진군을 서둘렀는데, 조선군은 이르지 않는 보급을 기다리느라 속도를 늦추고 있었던 것이다. 27일, 조선군은 劉綎의 재촉을 견디지 못하고 보급의 포기는 물론 지니고 있던 여러 장비마저 남겨두고 진군을 속개했다.⁸⁾ 후방 지원의 단절은 조선군의 전력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28일 拜東葛嶺 아래를 출발한 조선군은 平頂山을 지나 牛毛山 골짜기(牛毛溝)로 진입했다. 平頂山은 명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王從安은 平頂山을 普樂堡鎮 普樂堡村의 後山으로 추정했다. 後山은 마을 북쪽에 동서로

6) 이 주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격 조명한 논문은 한명기(1995), 「光海君代の 對中國 관계-後金문제를 둘러싼 對明關係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9, 진단학회, pp.93~134이다.

7) 『柵中日錄』의 저술 경위와 자료 성격에 대해서는 고윤수(2004),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지> 123, 연세대 국학연구원; 고윤수(2006), 「李民寯의 『紫巖集』과 17세기 조선의 遼東문제」, <북방사논총> 6, 동북아역사재단. 이 책은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위의 책, 2014로 번역 간행되어 연구에 도움이 된다.

8) 19일 도강한 좌영은 두 차례에 걸쳐 6일치 식량을 받았으니, 이론상으로는 25일에 이미 떨어졌다. 우영도 19일 도강했는데, 보급 장소를 지나치는 바람에 사흘 치 밖에 받지 못했다. 22일부터 굶주림에 시달렸다. 22일 도강하여 엿새 치 식량을 받은 중영은 그나마 형편이 제일 좋았다.

500~600m 뻗은, 정상이 운동장처럼 평평한 언덕이다. 산이라고는 하나 그 위는 모두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자기 집 서쪽에 있으니 西山이라는 주민이 있을 정도로 산으로서의 위상은 거의 없는, 표고가 살짝 높은 경작지에 가깝다. 後山은 고유명사이지만, 우리 말에 있어 ‘뒷동산’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위가 평평한 산을 平頂(또는 平頭)으로 부르는 명명 관습과 진행 경로를 고려하면 王從安의 추정이 타당하다.

이날 조선군은 하루 종일 牛毛嶺을 넘었다. 이 길은 조선에서 허투알라성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거니와, 기민한 정찰로 명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後金 군은 큰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조명 연합군의 진군을 방해했다. 수목이 우거져 視界가 무척 좁았는데, 앞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교전으로 착각한 誤報가 있었고, 오보자를 군심 동요죄로 참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개를 넘은 뒤에는 隨營牌 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적에게 사로잡혔다가 겨우 돌아왔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대었다. 이런 작은 소동은 당시 牛毛嶺을 넘는 조선군이 정보에 매우 어두웠으며, 또 그로 인해 진중에는 적지 않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좁고 험한 산길을 3만에 가까운 대군이 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위태롭게 느껴진다.

牛毛嶺 길은 지금의 普樂堡鎮 瓦房村과 四道河子鄉 大甸子村을 이어주던, 寬奠(寬甸)에서 허투알라성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기를 전후하여 새로운 길들이 났이면서 길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논자들은 이 길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조사했으나 두 번 모두 산에서 길을 잃어 옛 경로를 온전하게 확인하지 못했다.⁹⁾ 瓦房村과 大甸子村이 시작되는 골짜기 끝에는 牛毛山¹⁰⁾으로

9) 2014년 3월 28일(이승수, 권혁래, 신춘호, 김일환, 임문성)에는 출발지점을 잘못 잡아, 2019년 4월 26일(이승수, 신춘호, 김일환, 임문성)에는 전날 내린 폭설(산 아래에는 비)로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눈이 아니었어도 길을 찾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길을 아는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길을 찾았다고 해도 옛길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 서쪽으로 二戶來鎮 果松川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雅河鄉의 남쪽 石哈達의 渾江 가에서 그친다. 普樂堡鎮 牛毛口村과 四道河子鄉 大甸子村 사이가 중심이다. 주봉의 높이는 1,319.8m이고, 1,100m 이상의 봉우리만 22개이다. 위에서 보면 머리 하나에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진 소가 六河와 雅河 사이에 엮드려 있는 모습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桓仁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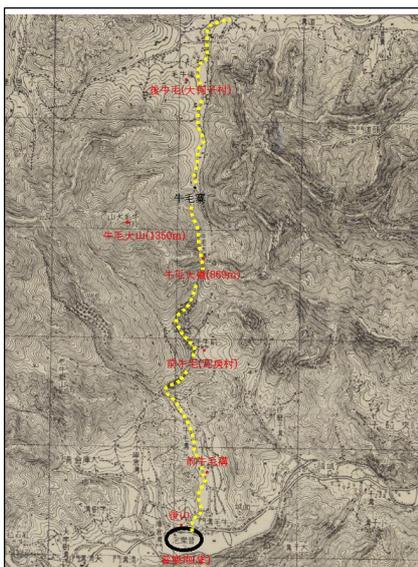
통하는 林道가 있는데, 이 林道가 외려 옛길을 호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라진 이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설혹 현지인의 도움으로 길을 찾는다 해도, 그 길이 옛길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다행히 牛毛嶺 길이 표시되어 있는 1930년대 지도¹¹⁾를 발견하여 향후 확인에 중요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 이 지도에는 普樂堡村 자리에 普樂泡가, 그리고 瓦房村과 大甸子村 자리에는 각각 前牛毛와 後牛毛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두 지점 사이에 길이 나있는데, 정상부에 ‘牛毛大嶺’이라 표기하고, 그 옆에 이 지점의 표고가 869m임을 나타내었다(그 서북쪽에 표시된 牛毛大山의 표고는 1,350m이다). 결정적인 단서를 얻은 셈이지만, 이를 토대로 한 전자지도상의 가설 실행만으로는 험악한 산길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지도에 표시된 길의 GPS 좌표를 연결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되 고갯길 정상 표고가 869m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다시 또 과제로 남겨둔다.

새벽에 출발한 조선군은 저물녘에야 牛毛寨에 도착하여 명군과 연합하여 주둔했다. 牛毛寨는 누르하치가 군사를 일으킨 1583년 이전부터 있었던 요새로, 1619년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군사 중진으로 활용되었다.¹²⁾ ‘寨’는 後金の 초기 지명에 자주 보이는 글자로, 자갈(돌)과 흙을 섞어 쌓거나, 목책을 세우거나 가로놓아 만든 소규모 방어시설을 의미한다. 산간 지역에 주로 쌓았으며, 심지어는 산 위에 쌓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축조 방법은 1621년 遼陽城 함락 이후 크게 발전한다.¹³⁾ 牛毛寨는 大甸子村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牛毛大山이 끝나는 지점의 大甸子河 서쪽에 있었다. 2005년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그 규모가 동서 1km 남북 2.5km에 달하며, 1m 정도의 성벽 위에 목책을 쌓았던 형태로 추정되고 있다.¹⁴⁾ 남쪽은 골짜기 입구로 좁으며

志』(1996) 제 2편 2장 3절 牛毛大山 조.

- 11) 1932년 일본 陸地測量部에서 제작, 1955년 중국에서 복제한 10만분의 1 축척 군사용 桓仁縣 지도.
- 12) 1620년 遼東經略 熊廷弼은 神宗에게 牛毛寨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상주하였으며(『奉天通志』), 1623년 毛文龍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공격한 바 있다. (『山中聞見錄』)
- 13) 後金 城寨의 특성에 대해서는 王雁(2011.3), 「明末女眞在遼寧地區興修的城寨及發展特點」, 『蘭台世界』, 遼寧社會科學院歷史所, 참조.
- 14) 牛毛寨의 형태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전계 『建州女眞』에 소개되어 있다. 李學成(2010.8),



<그림 1> 1932년 제작 지도의 牛毛嶺 길



<그림 2> 왼쪽 지도의 牛毛嶺 길 GPS좌표를 옮겨 표시한 오늘날의 위성 지형도



<그림 3> 『建州女眞』에 소개된 牛毛寨 평면도



<그림 4> 牛毛寨 북쪽 성벽 유적

북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李民寅은 牛毛寨를 지난 뒤에는 길이 평탄하다고 하였다. 牛毛寨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 이견이 없다.

「深山中的建州女眞遺址」, 『蘭台世界』에 이를 포함한 당시 성채의 특징이 정리되어 있다.

2월 29일, 조선군은 보급을 고대하며 牛毛寨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牛毛寨에 있던 30여 호의 집들은 명군에 의해 불태워졌고, 명군은 그들이 땅속에 감추어놓은 식량을 찾아 양식으로 삼았다. 기다리던 보급은 끝내 이르지 않았고, 喬一琦로부터 약간의 식량을 지급받았지만 주립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¹⁵⁾ 이날 李民奐은 “앞에 있는 길이 험한지 평탄한지, 오랑캐의 형세가 어떠한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가벼이 나아갈 수 없었다”¹⁶⁾라 했고, 姜弘立은 치계의 끝에, “화가 눈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¹⁷⁾고 했는데, 이 두 발언이 당일 牛毛寨 조선 군영의 상황과 분위기를 암시한다. 이날 통사 河瑞國으로 하여금 後金 진영의 六鎮蕃胡를 유혹하는 諭書를 지녀 가게 했다는 李民奐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3월 1일, 보급이 도착했으나 수십 석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군은 끝내 보급을 받지 못한 채 이동을 시작하여 馬家寨에 도착했다. 牛毛寨와 馬家寨 사이의 거리를 李民奐은 40여 리라고 했다. 조선후기 척도인 대략 1리=500m를 적용하면 대략 20km 정도 되는 셈이다. 그런데 두 지명 사이의 거리를 기록한 문헌이 또 있어 참고할 수 있다. 毛文龍(1579~1629)의 활약상을 담은 연의소설 『遼海丹忠錄』은 그의 사후 명나라 崇禎 연간에 간행되었는데, 1623년 전투를 담은 이 책의 17회에 이 지역의 노정이 “三十里牛毛嶺, 二十里牛毛寨, 二十里董古寨, 十里馬家寨”로 기록되어 있다.¹⁸⁾ 이 노정은 17세기 말 청초에 편찬된 『讀史方輿紀要』의 「輿程記」에도 전재되어 있다. 저술 시기나 경위로 보아 믿을 만한 자료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牛毛寨와 馬家寨의 거리는 30 리였고, 그 사이에 董古寨라는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대의 척도가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때 그 거리는 15km 남짓 된다.

15) 姜弘立이 이날 조정에 보낸 치계의 내용이다. 그런데 도강 무렵 지급받은 양식의 양에 대한 李民奐과 姜弘立의 기술에 차이가 있다. 姜弘立은 열흘 치 식량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가 궁금하다. 『光海君日記』 11년 2월 29일.

16) 李民奐, 『柵中日錄』 2월 29일, “前頭道路夷險, 虜中形勢, 全不聞知, 不可輕進.”

17) 『光海君日記』(중초본) 11년 3월 2일, 「姜弘立 馳啓」, “患迫燃眉, 罔知所爲.”

18) 『遼海丹忠錄』에 대해서는 양승민(2005), 「<遼海丹忠錄>을 통해 본 명청교체기의 중국과 조선」,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pp.93~119 참조.

『柵中日錄』과 『遼海丹忠錄』의 거리 사이에 10 리의 차이가 있지만 무시해도 되는 정도이다. 생소한 지리, 추위와 주립, 대규모의 군사 이동 등 변수를 고려하면, 조선군의 이동 경로가 다소 멀게 체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牛毛寨와 馬家寨 사이의 거리는 『遼海丹忠錄』의 기록대로 오늘날 척도로 환산 15~16km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馬家寨의 위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 - ② 四道河子村 일대(王從安), ⑥ 大院村(권혁래), ⑦ 半截溝村(박현규) - 가 제기되었다. 그 근거로 ②는 구불구불 여러 번 물을 건너야 했던¹⁹⁾ 옛길의 특징, 30 리 거리를, ⑥은 현장 답사를 통해 추정된 것이고, ⑦은 별다른 논거는 물론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馬家寨의 지리 특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위치를 추정할 만한 유일한 단서는 거리밖에 없다. 그런데 牛毛寨 자리에서 大院村과 半截溝村까지는 직선으로 각각 4.5km와 5.5km에 지나지 않는다. 四道河子村까지는 12km이다. 실제 거리는 이보다 15~20%는 길었을 것이다. 거리만 놓고 ⑥과 ⑦의 설은 성립되기 어렵다. 四道河子村 일대가 馬家寨 자리였다는 확증은 없지만, 세 가지 견해 중에는 ②가 사실에 가깝다. 四道河子村 일대는 넓은 개활지에다가 수량이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어 대규모 군대가 목기에는 적합한 지형이다.

보급은 여전히 이르지 않았다. 李民寅은 分戶曹 尹守謙(1573~164)에게 편지를 보내, 속히 양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굶주린 군사를 이끌고 적진 깊이 들어가 승리한 사례가 있느냐며 불만과 불안감을 드러냈다. 姜弘立은 이날 치계에서 또한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을 지극히 우려했다. 姜弘立의 보고에 따르면 이날 300기 정도의 적병이 나타났다고 한다. 姜弘立은 牛毛寨를 떠나 鬱朗山(城)에 포진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鬱朗山城은 桓仁縣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첫 도읍지로 알려진 五女山城의 다른 표현이다. ‘五女’란 명칭은 원대 사료에 처음 나타나며, 명대 사료에는 兀刺·兀拉·郁靈·于郎·于城 등으로 등장한다.²⁰⁾ 李民寅은

19) 李民寅은 2월 28일 일기에서, “牛毛寨를 지난 뒤로는 길이 평탄하고 높은 산이나 가파른 고개는 없지만 물줄기가 험하였다. 구비치는 물줄기를 여러 차례 건넜는데 깊이는 허리가 빠질 정도였다 過牛毛寨以後, 道里平坦, 無高山峻嶺, 而川澗險惡, 曲折屢渡, 深皆沒腰.” 고 했다. 王從安은 이 구절을 주요 논거로 삼았다.

20) 桓仁縣地方誌編纂委員會(1996), 『桓仁縣志』, 方志出版社, p.74.

『建州見聞錄』에서 ‘于朗’으로 표기하였다. 이날 後金의 주력군은 薩爾滸山 일대에서 杜松이 이끄는 명나라 西路軍을 대파했다. 하지만 東路의 명군은 물론 조선군 진영에서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3월 2일 동시에 네 방면에서 後金의 본거지를 들이치자던 애초의 계획도 어그러졌다.

III. 살육과 공포의 전투 현장, 富車 들판 (3월 2일~3월 4일 오후)

3월 2일, 조선군은 馬家寨를 떠나 20여 리를 이동하여 점심에 深河에 도착했다. 『遼海丹忠錄』에는 馬家寨와 深河子 사이의 거리가 40 리로 되어 있다. 深河子라는 지명은 세심한 주목을 요한다. 이 深河子は 深河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 두 문헌에 표기된 거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은 『柵中日錄』의 기록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王從安도 별도의 주석 없이 20 리 거리를 채택하여, 黑臥子村 일대를 심하로 비정했다. 三道河子村과 黑臥子村 사이의 거리는 대략 9km이니 20 리에 대차 없이 부합한다. 王從安은 深河를 지금의 六道河로 보았다. 六道河는 남북 두 곳에서 발원하는데, 두 물줄기는 黑臥子 부근 柳林子에서 합류하고, 四道河子에서 後牛毛水(지금의 大甸子河)를 받고, 六道河子 이후 수량이 많아져 倭家江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이다.²¹⁾ 深河는 六道河 중에서 수량이 많아지는 구간이고, 옛길 동선과 거리를 고려할 때 黑臥子 일대가 그곳이라는 게 王從安의 추론이다. 거리상 黑臥子村 일대를 ‘深河’로 보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다만 ‘深河’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첫째, 深河를 六道河로 볼 경우, 『柵中日錄』 서술의 앞뒤 문맥이 맞지 않게 된다. 牛毛寨를 떠난 조선군은 馬家寨에 이르기 전 최소한 한 번은 六道河를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馬家寨 일대가 하류이니 수량도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黑臥子에 이르려면 六道河를 한 번 더 건너야 했다. 그런데 왜 黑臥子 부근의 물줄기를 처음 접하는 것처럼 ‘深河’라고 특칭했을까? 深河는 물줄기를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라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遼海丹忠錄』의 이 일

21) 桓仁縣公署(1937), 『桓仁縣志』, 3장 地理志, 5절 河流, 六道河子.



<그림 5> 牛毛寨와 馬家寨, 그 사이의 추정 옛길. 大院村과 半截溝村은 30리로 보기에 너무 가깝다. 왼쪽 끝에 '심하(채)' 자리로 추정되는 黑臥子村이 있다.

대 노장에는 뒤에 ‘寨子’가 붙은 여러 지명이 보이는데, 深河子是 深河寨子の 줄임말이거나 ‘寨’의 기능이 약해 ‘子’만 붙인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의 논문에서는 아예 ‘深河寨’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였다.²²⁾ 놀랍게도 ‘深河寨’라는 지명은 우리 문헌에 나온다. 아래는 3월 4일 전사한 김응하를 기리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2월에 국서 보내 도강을 재촉하여 二月飛書催渡江

22) 李學成, 앞의 논문. 다만 이 논문에서는 거명만 하고 분석이나 설명으로 나아가지 않아, 아쉽게도 그 근거와 이유까지는 알기 어렵다.

대군과 힘을 모아 공격하게 하였네	要與大軍犄角之
우모령 심하체	牛毛嶺 深河寨
호지의 산천 형세 뉘라서 알았으리	胡地山川險易誰得知 ²³⁾

牛毛嶺과 深河寨는 胡地 산천의 형세를 드러내기 위해 의미(嶺/河)를 고려하고 글자를 맞춰 내세운 지명이다. 深河寨의 ‘寨’는 그저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한 수사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선 현지 정황과 잘 들어맞는다.

둘째, 1619년 3월 초 며칠 사이에 있었던 전투에 당대 사람들은 ‘深河’라는 지명을 붙여 이름을 지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深河之役’과 ‘深河之戰’이다. ‘戊午之役’과 ‘己未之役’이란 명칭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富車之役’이란 명칭도 두 차례 사용되었다. 의아한 것은 ‘深河’가 애용된 이유이다. 주요 전투가 벌어진 현장은 富車 들판이고, 『柵中日錄』에도 ‘深河’는 3월 2일 일기에 1회 나오는 게 전부이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전투 현장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에는 ‘富車’라는 지명이 들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맥락 없이 深河가 표상 지명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추정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있다. 사건 직후 金應河 포양 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忠烈錄』 권 하에는 87제 111수의 만시가 실려 있는데, 그중 ‘深河’라는 단어가 13차례나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²⁴⁾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참담하다 심하여 일 이미 그릇되니	慘憺深河事已非
모래밭 어디에서 왕사는 돌아올까	沙場何處返王師
백 자 심하에다 만 길 산이로다	百尺深河萬仞山
이제껏 모래밭엔 핏자국 낭자하리	至今沙磧血痕斑 ²⁵⁾

23) 洪命元(1573~1623), 『金將軍歌』, 『海峯集』 권 3. 이 시는 『忠烈錄』 卷下에도 실려 있다.
 24) 1798년에 중간된 『忠烈錄』 소재 글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忠烈錄』의 판본과 이본에 대해서는 이송희(2009), 『김응하 『충렬록(忠烈錄)』 판본 변개 과정과 그 의미』, <儒學研究> 46, 충남대 유학연구소, pp.129~159에 자세하다.

李慶全(1567~1644)의 시에서는 심하가 참담한 전장으로, 朴鼎吉(1583~1623)의 시에서는 전장의 장엄한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대 수많은 전투는 강을 배경으로 펼쳐졌고, 옛 문헌에는 그 전장에 대한 기록과 고사가 많다. 패전 소식이 들려온 뒤 조정에서는 서둘러 金應河 포양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그의 죽음을 장렬하고 순결하게 묘사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金應河의 거룩하고 심오한 죽음을 그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富車라는 여진어 지명보다는 深河가 적당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깊은 물’이 지나는 죽음과 단절의 의미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정도 추론에 그치며, 현자의 새로운 견해를 기대해본다.

深河에서는 5백~6백기 규모의 後金 기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東路軍을 저지하기 위해 파견된 托保, 額爾訥, 額赫이 지휘하는 군대였다.²⁵⁾ 이들과 명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고, 조선군도 여기에 가담했다. 이 전투에서 額爾訥과 額赫이 죽었으며, 後金군은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고 동쪽 산속으로 들어가 대치했다. 500~600기로 3만 가까운 대군의 행보를 늦추었으니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조명 연합군은 3월 2일 약속에 대어 가려면 발길을 재촉해야 했지만, 이 싸움으로 오후 한나절을 지체했고, 대군은 또 하루를 여기서 목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後金의 주력군은 尙間崖(撫順市 哈達鄉 上年馬村 일대)에서 馬林이 이끄는 北路軍마저 격파했다. 이들 간 두 차례의 전투에서 6만에 가까운 명나라 주력군이 완전히 궤멸된 것이다. 東路의 조명 연합군 진영에서는 그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3월 3일, 보급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식량이 떨어진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군사들은 개인적으로 지참한 미숫가루 등으로 간신히 허기를 달랬다. 이 상태로는 진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姜弘立은 劉綎에게 하루만 기다릴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劉綎은 마지못해 응낙했다. 이미 약속 기일은 지났다. 전날 전투에서 劉綎의 양자 吉龍(조선 출신)이 죽은 것도 지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劉綎은 상심에 젖은 채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화장했다. 姜

25) 각각 李慶全과 朴鼎吉 시의 일부이다. 李慶全의 시는 그의 문집 『石樓遺稿』에 「金應河挽」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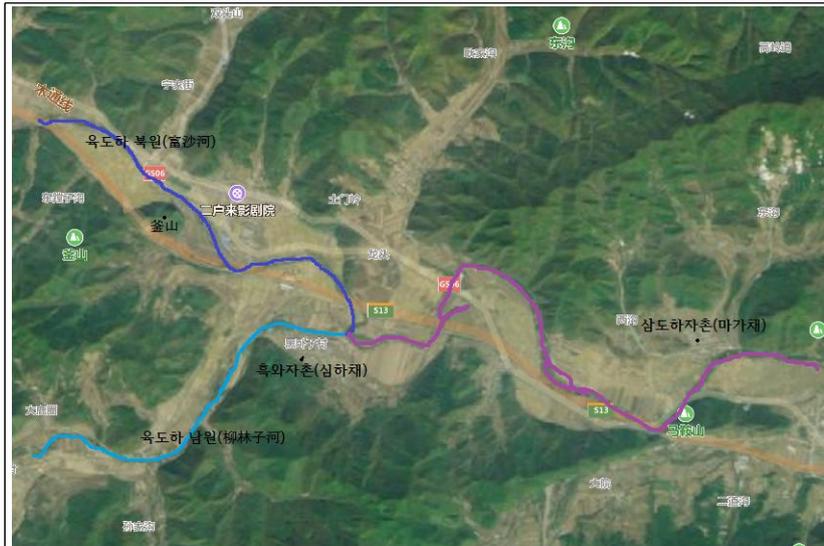
26) 『皇清開國方略』 권 6에 이들의 이름 및 간단한 전황이 기술되어 있다.

弘立은 300기를 보내 보급부대를 맞아 오게 했는데, 200리도 못 가 되돌아왔다. 糧道가 차단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희망적인 예후도 포착되었다. 동북쪽 먼 곳에서 대포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 것이다. 대포 소리는 後金 본거지에 도착했을 때 서로 취하기로 한 약속이었던 것이다. 연합군은 이 소리에 용기를 얻었지만, 그건 後金 진영에서 東路軍 교란술이었다.²⁷⁾ 연합군이 深河(寨)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2일 전투 후 휴식을 취한 後金의 주력군은 東路軍 이동 길목으로 속속 이동해 왔다. 누르하치는 清河城과 鴉鵲關 길로 오는 李如栢의 南路軍을 대비하여 4,000명의 군사를 도성에 배치시키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동쪽 전선에 투입했다.²⁸⁾

3월 4일, 아침 8시경 진군을 시작했다. 명군이 앞서고, 조선군은 좌영, 중영, 우영 순으로 뒤를 따랐다. 수십 리를 이동하여 富屯 들판에 도착했는데, 대포 소리가 세 번 들려오더니 앞쪽에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다. 姜弘立은 즉시 길 왼쪽 언덕으로 올라갔다. 중영과 우영은 언덕에 포진했으나, 좌영은 겨를이 없어 들판에 진을 쳤다. 姜弘立은 우영으로 하여금 좌영을 돕게 하여, 좌우 두 영이 들판에서 後金 군을 맞이했다. 이윽고 後金 군이 들이닥쳤고 불리한 풍향 속에서 좌우 군영은 전멸했다. 중영과 좌우영 사이의 거리는 천 걸음이 채 되지 못했다. 중영은 높은 언덕 위에서 좌우영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지켜보아만 했다. 이때 죽은 군사의 수는 8천~9천 명에 이른다(정확한 숫자 파악도 안 되었음). 전투는 참혹했고, 언덕 위에서는 경악했다. 이날 밤 시신은 들판을 덮었고,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는 초조와 공포가 가득했다. 조선군 중영에서 투항 논의가 일자 명나라 監軍 喬一琦는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27) 대포 소리와 관련하여, 3월 3일 杜松의 令箭을 지닌 浙江 군사가 劉綎을 찾아와 진격을 재촉했고, 劉綎은 이를 의심했으나 결국은 그 말에 현혹되어 행군을 서두르다가 예기치 않게 後金의 군대를 맞아 패전했는데, 그 절강 군사는 後金 군이 보낸 杜松 군 포로였다는 이야기가 『明史紀事本末 補遺』 권 1, 『遼左兵端』이다. 『柵中日錄』 3월 4일 기록에 보이는 바, 패주한 于承恩·喬一琦의 전언을 보면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8) 『皇清開國方略』 권 6. “太祖自界藩, 申刻起行, 五更還都城. 平明命大貝勒三貝勒四貝勒統軍士, 禦劉綎, 而留兵四千于都城, 待李如栢賀世賢等之兵.”



<그림 6> 深河寨 자리로 추정되는 黑臥子村 일대. 그 앞에서 六道河의 두 원류가 만난다. 三道河子村[馬家寨]에서 여기 오기 위해서는 六道河를 건너야 한다.

1619년 3월 4일, 한국사에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로 기억되어야 한다. 전투에서 사망자의 발생을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급과 정보의 부재 상태에서 하루에 8,000~9,000명의 장병이 무기력하게 전사한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대충 흘러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무능한 권력이 있었다. 사후 처리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조정은 사망자와 포로 및 귀환자의 명단은 물론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400년이 지나도록 전사자의 수는 여전히 8,000~9,000명이다. 포로와 귀환자 및 억류자의 정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니 참전 장병 가족의 실태 및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턱이 없다. 사건 현장의 조사 및 관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패전 직후 조정의 관심은 온통 권력의 유지에만 쏠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상은 은폐·왜곡·망각되었다.²⁹⁾

29)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수(2003), 『深河戰役과 金將軍傳』, <한국문학연구> 2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pp.23~53 참조.

이날 조선군 좌우영의 전투 현장과 중영의 피신 장소는 어디인가? 그 지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유물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기록에서는 ① 지형, ② 거리, ③ 방위, ④ 정황(喬一琦의 자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두 지점에 대한 가장 치밀한 논의는 王從安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의 논의는 王從安 설을 확인하거나 부분적으로 이견을 더하는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1998년까지 조선군의 전투 현장은 막연히 富察(車) 들판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1999년 王從安은 1973년의 전쟁 유물 출토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계기로 조선군 관련 지점을 정밀 고증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유물 출토 지점은 출토 지점은 碑登溝 입구 大廟西山과 腰淌子溝의 산 사이 하천 가이며, 총기와 화약이 숲 사이에 놓여 있어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³⁰⁾ 그의 견해를 간추리면, 鑷來鎮 紅塘石 마을 앞이 좌우영 전투 현장인 富察 들판이고, 유물이 출토된 腰淌子溝 부근 산이 중영의 피신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지명과 평면도만으로는 현장의 지리 형태를 가늠하기 힘들다. 王從安의 견해를 위성 지형도에 재현하면 아래와 같다.³¹⁾

이 견해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선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① 李民賓은 전투 현장인 富車 들판과 3월 5일 중영이 묵었던 曰可時(瓦爾喀什, 지금의 洼子溝村) 사이의 거리를 20여 리라고 했다. 지금의 洼子溝와 紅塘石 사이의 거리는 5.6km 정도로 20여 리에 훨씬 못 미친다. ② 이 일대의 옛길은 북쪽 산 아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李民賓은 대포 소리가 들리자마자 姜弘立이 길 왼쪽의 높은 언덕[高阜]로 올라갔다고 했으며, 이 언덕의 형태를 달랑 솟아있다[孤阜]

30) 이 증언을 1994년 桓仁縣의 문물 담당 관리가 채록하였고, 王從安은 이 2차 자료를 1999년 접한 것이다. 채록이 문서로 남아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王從安의 탐문 당시 1차 증언자는 사망했고, 관련자들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았다. 출토 유물은 고철로 팔렸다고 한다. 王從安은 이 증언을 토대로 지도를 만들어 1999년(각주 2) 글에 첨부했고, 2001년 논문에서는 관련 정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31) 박현규의 견해는 지명만으로는 정밀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좌우영의 전투 현장에 대해서는 王從安 설을 따르고 있으며, 중영의 피신 장소는 王從安 추정 위치보다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박현규가 중영 피신 장소로 비정한 南大山은 현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王從安이 추정된 곳은 南山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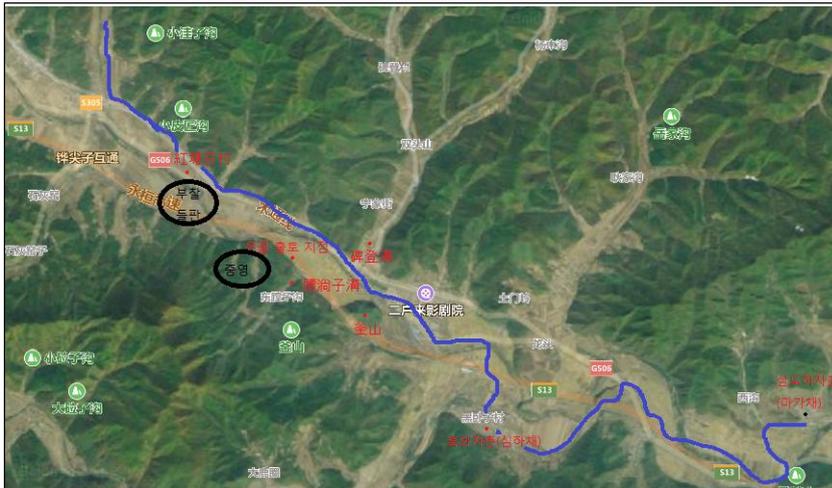
고 했다. 이는 산이 길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독립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喬一琦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많은데, 『柵中日錄』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墮崖死]고 했다. 王從安과 박현규가 추정 한 형세가 완만한 토산이라 투신할 만한 절벽이 없다. 이 세 가지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지점은 釜山과 그 서북쪽 들판이다. 추정 진군로 가까운 곳에 있으며, 釜山은 북쪽과 서쪽에 높은 바위 절벽이 있는데, 그 서북쪽은 넓은 개활지이다. 이곳으로부터 洙子溝까지의 거리는 9~10km로 李民寔의 기록과도 부합한다.³²⁾

결정적인 증거는 유물이다. 논자들은 2014년 현지 조사에서 釜山을 유력한 姜弘立 피신 장소로 추정하고 탐문하는 가운데, 그 아래 사는 朱全明 옹(당시 66세)으로부터, 자신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어렸을 때 부산 위에서 화살촉을 주우며 놀았다는 증언을 들었다. 그는 이번 4월 답사에서 똑같은 증언을 해주었다. 이 증언이 유력한 사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1937년 간행된 『桓仁縣志』에서 아래 기록을 발견했다.

釜山은 읍의 서쪽 蕃康村 시내 남쪽에 있는 바위기둥이다. 평탄한 지면에서 산세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엎어놓은 솥과 같아 이런 이름을 얻었다. 산 북쪽에 堡壘 터가 있는데, 완전한 옛 성이다.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기를, 명나라 만력 연간에 王五和尚이란 대도가 이 산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모아 법을 어지럽히며 관군에 대항했다. 명나라 조정의 대토벌로 섬멸되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밭을 갈 때면 수시로 화살촉이며 銅炮 같은 옛 병기가 나오는데, 동포 중 가장 무거운 건 20~30근이나 되며, 명나라 만력 연간 어떤 해에 만들었다는 등의 글자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³³⁾

32) 거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李民寔은 3월 4일 深河를 출발하여 “겨우 수십 리를 가 부차 땅에 도착했다. 纔數十里, 到富車地.”고 했다. ‘數十里’가 얼마를 가리키는지가 애매하고, ‘수십 리’에 ‘겨우[纔]’라는 부사를 사용한 것도 의문이다. 일반적인 용법은 아니지만, “겨우 10 리를 헤아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본다. 참고로 黑臥子村에서 釜山 앞 들판까지는 4.5km이고, 紅塘石 앞 들판까지의 거리는 9~10km이다.

33) 桓仁縣公署, 『桓仁縣志』(1937), 3장 지리지, 7절 「古蹟, 釜山」. “在邑西蕃康村河南石柱子, 平坦之地, 山勢陡起, 其形如覆鍋, 故得斯名. 山北有堡壘舊址, 宛如古城, 據土人相



<그림 7> 王從安이 제시한 전투 현장. 유물 출토 남쪽 산이 姜弘立과 중영이 피신했던 곳이고, 紅塘石村 앞을 좌우영이 진을 펼쳤던 부찰 들판으로 보았다.

책에 실린 「桓仁縣區村全圖」에 따르면 蕃康村은 당시 이 일대 마을의 이름이었다. 설화적 내용을 제외하면 이 기록은 朱全明 옹의 증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부산이 특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바위기둥[石柱]이라는 형태와 형질이다. 조선군 피신 장소는 청대 사료에 固(孤)拉庫崖로 표기되어 있는데, 주로 바위절벽을 의미하는 ‘崖’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堡壘’ 관련 설명이다. 『柵中日錄』 3월 4일 기록에는, 부상당한 文希聖이 “동쪽 구석 오른쪽 담장(혹은 성벽) 안에서 누워 신음하고 있다. 臥呻東偏右壁之內”라는 구절이 있다. ‘壁’은 산 위에 인공 건축의 흔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유적의 발견은 전투 현장을 비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겠다.³⁴⁾ 출토 병기에 대한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화살촉 이야기는 朱 옹의 증

傳, 當明代萬曆年間, 有巨寇王五和尚者, 佔據此山, 聚衆爲亂, 抗敵官軍. 經明廷大施討伐, 始就殲滅. 迄今鄉人耕之, 時得箭簇銅炮等古昔之兵器, 其銅炮之最重者, 約二三十斤, 鑄有明萬曆某年製等字樣.”

34) 2014년에는 산 위에 올랐지만 ‘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기록을 확인한 것은 2019년 4월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이기 때문에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나의 숙제가 생긴 셈이다.

언과 부합한다. 20~30근 되는 銅炮를 당시 조선군이 지니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王從安 연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병기 출토 관련 사실이 이미 桓仁 지방지에 실려 있었는데, 이 기사가 그의 눈에 들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이상의 논거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姜弘立과 李民賓을 비롯한 조선군 중영 4~5천 명이 일시 피신했던 장소를 釜山으로, 좌우영 8, 9천 명이 패전한 장소는 釜山의 서북쪽 들판으로 비정한다. 중영과 좌우영의 거리는 천보 안쪽이었으므로, 富沙河와 碑登河가 만나는 지점 일대가 될 것이다. 紅塘石 마을 앞과 釜山 아래는 다 하나로 이어진 富車 들판인데,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3~4km 정도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보고 중 권혁래·신춘호 외(2015)의 견해가 가장 근사하다. 다만 王從安의 주장은 본고의 견해와 교집의 가능성이 있어 밝혀둔다. 조선군 피신 지점에 대해서는 하나 밝힐 게 있



다. 釜山은 4, 5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들어가기에는 좁다. 王從安이 추정하

지점(下大地)과 釜山은 최근 고속도로의 부설로 허리가 끊겨졌지만 본디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므로, 조선군은 두세 봉우리에 나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王從安이 조선군 피신처로 짚은 지점은 조금 더 동남 쪽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IV. 체념과 안도의 포로길, 家哈嶺 길 (3월 4일 저녁~3월 6일)

조선의 좌우 군영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守備 于承恩과 監軍 喬一琦가 중군 진영에 들어와 명군의 몰살 및 劉綎의 전사 소식을 전해주었다. 두 사람은 겨우 몸을 빼어 달아난 것이다. 얼마 뒤 後金의 대규모 군대가 나타나 조선 군영을 좌우로 에우기 시작했다. 姜弘立은 우영으로 하여금 좌영을 구원하여 연합진을 펼치게 했다. 이윽고 전투가 벌어졌고 좌우영은 궤멸 당했다. 전투 정황은 『柵中日錄』과 『皇清開國方略』의 기록이 부합한다. 산위에서 전투 장면을 바라본 중영의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당시 중영의 분위기를 李民寯은 이렇게 기록했다.

중영으로부터 좌우 두 군영까지의 거리가 천 발짝도 되지 않았으니, 그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혼백이 달아나지 않은 이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무기를 버리고 앉아서 꼼짝 않는 자들도 있었다. … 여러 날 굶주린 군사들은 초조함과 기갈이 극에 달했다. 달아나려 해도 퇴로가 끊어졌고, 싸우자 해도 사기가 다 무너진 상태라 어쩔 방법이 없었다.³⁵⁾

조선군 중영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전의가 있었다고 해도 며칠을 굶주린 상태에서는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 들판에는 조선군 시신이 즐비했고, 나흘 동안 杜松(1일)과 馬林(2일)의 군대에 이어 劉綎 군과 조선 군까지 격파한 後金 군의 등등한 살기는 등등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조선군 중영

35) 『柵中日錄』 3월 4일. “自中營去兩營. 不過千步. 目觀蹂躪. 無不喪魄. 至有拋棄器械. 坐而不動者. … 屢日饑卒. 焦渴兼劇. 欲走則歸路斷絕. 欲戰則士心崩潰. 無可奈何.”

의 분위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後金 군에서 사람을 보내왔다. 後金의 태도는 의외로 우호적이었다. 後金은 애초 조선과는 舊怨이 없으며, 이번의 출병 또한 부득이하게 결정된 것임을 알고 있다며, 화의를 제안했다. 화의를 주도한 사람은 大貝勒 代善(『柵中日錄』에는 貴盈哥)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군영은 기뻐 날뛰느라 대오를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은 일종의 안도감, 살 수 있다는 희망의 표현이었다. 군사들은 진중에 피신해 있던 명군 7~8명을 쫓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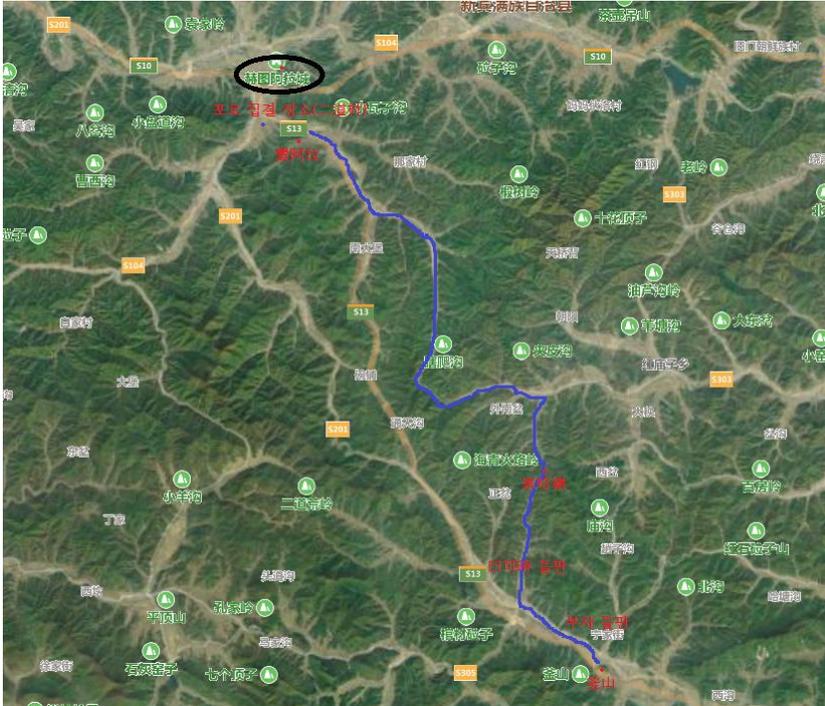
통사로 하여금 군기를 들고 오게 하여 말했다. “이번의 출정은 우리 뜻이 아니다. 옛날 왜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 명나라의 도움을 입어 왜병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번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군사를 뽑아 온 것이다. 그대들이 받아준다면 우리는 마땅히 귀부할 것이다. … 드디어 명나라 병사들을 모두 산 아래 우리들에게 보냈다. 명군 유격 喬一琦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에 조선 부원수가 먼저 우리 군영에 와서 항복했고, 이튿날 도원수 姜弘立도 산에서 내려와 항복했다. 여러 패극들은 잔치를 베풀어 위로했다. 姜弘立 및 부하 장수들을 먼저 도성으로 보냈다.³⁶⁾

입장에 따라 작은 의미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화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柵中日錄』과 청나라 사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4일 부원수가 먼저 後金 진영에 가서 화의에 나섰고, 이튿날 도원수가 항복한 것도 사실과 부합한다. 대명 전쟁을 막 시작한 後金은 굳이 조선을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었고, 조선군 지휘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화의를 반기는 병사들의 뜻을 거스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밤사이 後金 군이 산 주위를 여러 겹으로 둘러싸 순라를 돌았다.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무도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다. 군사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불을 피웠고, 혹시 모를

36) 『皇清開國方略』卷6. “遣通事執旗來告曰, 此來非吾願也. 昔倭侵我國, … 賴明朝, 我獲退倭兵. 今以報答之故, 奉調至此. 爾撫我, 我當歸附. … 遂盡執明兵, 擲于山下付我. 明遊擊喬一琦自縊死. 于是朝鮮副元帥先詣我軍降. 翌日姜功烈率兵五天下山降, 諸貝勒宴勞之. 送功烈及所部將士, 先詣都城.” 이와 똑같은 내용이 『欽定滿洲源流考』卷14에도 실려 있다.

뒷일을 위해 타고 남은 숲을 이용하여 병기를 땅에 묻었으리라는 王從安의 추론은 타당하다. 화의가 굳어지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喬一琦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방식이 『柵中日錄』의 내용과 다르다.³⁷⁾

5일, 和約이 성사되었다. 李民寅은 和解, 議和, 約和 등의 단어를 사용했



<그림 11> 富車 들판에서 曰可時와 家哈嶺을 지나 後金の 都城으로 이어지는 포로 길 지도

37) 喬一琦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深河에서의 패전에 대한 최초의 공식 보고인 평안감사 朴燁의 치계에는 ‘활줄로 목을 매었다가 조선 군인들이 구해내자 절벽에 몸을 던져 죽었다. 卽以弓弦繫項, 我國將官救之, 乃挺身墮崖而死’고 되어 있다. 『柵中日錄』은 절벽에서 투신하는 것으로, 『崔陟傳』에서는 명군이 화약이 성사되는데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李民寅이 喬一琦와 그의 부하들이 입은 조선 군복을 벗기고 後金 군으로 남기는 것으로, 『姜虜傳』에서는 姜弘立에 배신에 격분한 喬一琦가 칼 위에 엎어져 자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일환(2019), 『明將 喬一琦의 죽음으로 본 深河戰役』, <열상고전연구> 68, 열상고전연구회, pp.77~122 참조.

다. 청나라 사료에는 ‘降’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다. 승패가 갈렸고, 전력의 우열이 뚜렷했으며, 조선군이 무장 해제를 당한 상태에서 後金 군의 본거지로 끌려갔으니, 실상은 투항이었던 셈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군은 일부의 무기를 은닉했는데, 이것이 뒷날 출토된 것이다. 李民賓은 투항 장면을 기술하지 않았다. 자기 변호의 차원에서도 치욕스러운 장면을 굳이 서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산에서 내려온 조선군은 무장 해제를 당했고, 개선하는 後金 군의 삼엄한 감시 아래 後金의 도성으로 출발했다. 정황상 포로길이 시작된 富車 들판에는 조선군의 시신이 즐비하였다. 하지만 그 참혹한 현장에 대한 기술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 추리컨대 병사들은 애써 시신을 거두었고, 뒷날 李民賓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조정은 가급 그 상처와 흉터를 덮어두려고 했다. 고통을 잊으려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상처를 덮으려는 건 권력의 음모이다. 이들의 기묘한 투합으로 우리 역사에서 끔찍한 장면이 지워졌다. 하지만 그 대가로 후대에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병사들이야 차마 눈길을 줄 수 없었다고 해도, 최소한 권력층은 그 처참한 장면과 현장을 응시했어야 했다.

富車 들판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조선군 포로들은 4~5리를 가서, 전날 명군 패잔병이 산 위에 있다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다시 목격했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康應乾의 부대로, 전투가 벌어진 곳을 半截溝(紅塘石村 중심에서 700~800m 떨어진 곳) 일대로 추정한다. 李民賓은 명군 잔병이 시살되는 모습에 참혹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나는 곳마다 수십 리에 걸쳐 시신들이 삼나무처럼 쓰러져 있다고 했다. 얼마간의 객관적인 거리감을 회복한 때문일까, 아니면 불편한 금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일까, 李民賓은 간단하게나마 명군의 전장을 기술했다. 조선군은 日可時에서 하루를 묵었다. 日可時는 청대 사료에는 瓦爾喀什 또는 瓦爾喀什窩集(窩集은 원시 삼림을 뜻하는 만주어의 음차)으로 나온다. 瓦爾喀什은 여진족 棟鄂部の 발상지인 瑯春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뒷날 棟鄂部는 지금의 桓仁縣으로 이주하였고, 16세기 말 이들의 지도자 何和禮는 누르하치에게 귀부한다.³⁸⁾ 이곳에는 누르하치의 興兵 이전부터 요새의 기능을 하는 마을이 형성

38) 瓦爾喀什와 棟鄂部の 關係에 대해서는 王從安(2007.9), 「棟鄂部研究」, <滿族研究>

되어 있어, 휴식과 관리가 용이했을 것이다.³⁹⁾ 2월 28일 諭書를 지녀 보낸 河瑞國이 後金の 도성에서 와 그곳의 정황을 알려주었다. 河瑞國의 발언 내용은 은연 중에 ‘密書說’을 떠오르게 한다. 曰可時는 오늘날의 鑼來鎮 洼子溝村이다.

6일, 조선군은 家哈嶺을 넘어 後金の 도성인 赫圖阿拉에 도착했다. 家哈嶺은 문헌에 따라 阿布達哩岡 또는 嘉哈嶺으로 나온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家哈嶺과 阿布達哩岡을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현지에서는 같은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다. 桓仁의 棟鄂部와 허투알라 建州女眞 사이의 중요한 교통로였으며,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금도 길이 남아있다. 3월 1일과 2일 전투를 치른 後金 군은 3일 밤 이 고개 길을 넘어 와 曰可時에서 휴식하면서 전투를 준비했고, 다시 승리를 대승을 거두고는 사흘 만에 조선 포로를 데리고 이 고개를 넘어간 것이다. 家哈嶺 길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완만한 형세이며, 고개는 별로 높지 않다(고도?). 현재는 撫順市 新賓滿族自治縣 紅廟子鄉과 本溪市 桓仁滿族自治縣 鑼來鎮 洼子溝村의 경계가 된다.

李民寔은 한낮에 後金 도성 밖에 이르렀으며, 曰可時와 도성 사이의 거리를 40여 리라고 했는데 이 기록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구간의 거리는 전자지도 상에서 직선으로만 측정해도 40km나 되며, 가합령 외에도 分水嶺이라는 곡선이 반복되는 가파른 고개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병이라면 애기가 다르겠지만 조선군 포로들에게 말을 제공했을 것 같지는 않다. 새벽에 출발하여 도보로 이동했다면 아무리 빨라도 저물녘에나 도착했을 터이다. 지리 조건과 기록 사이의 괴리가 의아하다. 병사들은 성 밖 10리 지점에 머물러두었고, 두 원수와 5~6명의 군관, 그리고 휘하 장수와 통관 등 17~18명은 도성 안으로 누르하치를 만나러 갔다. 이날의 기사에서 李民寔은 조선군 지휘부가 누르하치를 만나면서 三拜九叩頭의 예를 행하지 않은 것을 힘써 기술했는데, 실상 여부를 떠나 자기 변론의 목소리가 강하게 감지된다.

본고의 관심은 나머지 조선군 포로들이 머문 도성 밖 10 리 밖이 어느 지점인가 하는 문제이다. 家哈嶺과 分水嶺을 넘어 허투알라로 향하는 옛길을

pp.69~74 참조

39) 瓦爾喀什寨의 규모와 시설에 대해서는 李學成의 앞 논문에 설명이 자세하다.

짚어가다 보면, 도성에 도착하기 전 직선거리로 5km 못 미친 곳에서 後金の 첫 번째 도성인 費阿拉城 터를 만날 수 있다. 費阿拉城은 後金이 일어난 곳이라는 의미에서 뒷날 興京으로도 일컬어졌다. 後金이 여기에 성을 건립한 해는 1587년이다.⁴⁰⁾ 이후 1603년 북쪽 가까운 곳에 赫圖阿拉城을 짓기 시작했고, 1616년 이곳에서 大金을 건국했다.⁴¹⁾ 대금의 건국과 새로운 성의 완공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1619년 3월 무렵 費阿拉城 일대에는 조선군 포로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만한 여러 시설과 인력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조선군 포로들은 구성 근처에 수용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費阿拉城 북쪽은 하천이 흐르는 넓은 개활지이고, 1km 지점에 二道朝鮮族村이 들어서 있는데, 이 일대가 조선군 포로들이 일차 수용되었던 곳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허투알라성이 육안으로 보인다.



<그림 12> 家哈嶺 옛길(정상부) 전경(조선군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었다)

40) 1595년 南部主簿 申忠一(1554~1622)은 建州女眞의 동정을 탐지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되었다. 그는 그해 12월 22일 만포를 출발하여, 28일에 費阿拉城에 도착하여 누르하치의 환대를 받다가, 이듬해 1월 5일 귀국길에 올랐다. 申忠一은 1월 30일에 복명하며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것이 『建州起程圖記』로 費阿拉城에 왕복하는데 경유한 산천과 지명, 여러 지역의 거리, 촌락의 다소, 군비의 유무 등을 자세히 기록한 그림 지도와 費阿拉城의 약도가 수록되어 있다. 원본은 성해응(1760~1839)의 『研經齋全集』에 실려 있고, 후손들이 보관해 오던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사진판으로 소장되어 있다. 중세사료강독회 옮김(2014), 앞의 책에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

41) 後金 초기 두 성의 건립과 그 경위에 대해서는 王雁, 앞의 글, 참조.



<그림 13> 費阿拉城 일대. 좌측 산 아래(점 표시)가 費阿拉城 옛 터.

V. 맺음말

본고는 1619년 2월 28일에서 3월 6일까지의 8일 동안, 오늘날의 중국 遼寧省 本溪市 桓仁縣과 撫順市 新賓縣에서 있었던 深河戰役의 사건 현장을 고증하여, 지리상의 몇몇 지점과 경로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탐색한 결과이다. 선학의 연구 성과 위에서 출발한 덕분에 많은 힘을 덜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牛毛嶺 길처럼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겨졌고, 3월 4일의 전투 현장인 富車 들판과 피신 장소의 경우에는 부득이 선학의 노고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釜山을 중영의 피신 장소로 보는 데에는 현지 주민의 증언과 『桓仁縣志』의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深河를 하천이 아닌 마을(요새) 이름으로 본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단서를 얻었으니 본 고만의 성과라고 내세울 수는 없다. 포로 길 상에서 허투알라성 밖 10리 지점이 費阿拉城 터임을 확인한 것도 작지만 소중한 성과이다.

10여 년래 논자들은 끌리듯이 이 현장을 여러 번 찾았다. 그 이유는 이 전

투의 역사적 의의 때문이 아니다. 전투의 의의라고 해봐야 국가의 흥망, 권력의 교체 등에 지나지 않는다. 牛毛嶺 길을 건넌 사람들의 주림과 불안, 부차 들판을 가득 채웠던 죽음에 직면한 공포와 참혹한 죽음의 실상,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 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움 등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그 이후 권력이 보여준 외면과 망각의 잔인함, 죽은 자와 남은 자들에게 어떤 성의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무능과 무책임, 그러면서도 도덕과 명분을 입에 올리곤 했던 위정자들의 위선과 가식,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역사의 관행에 대한 두려움도 또 다른 이유이다.

그래봐야 우리가 확인한 것은 사연들의 표피와 남은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1619년 3월 초 며칠 사이에 일련의 사건들을 ‘深河戰役’ 네 글자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록이란 게 무색하고, 이 기록을 토대로 지어진 역사라는 것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 몇몇 장소들은 어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 모순과 아픔에 대한 변변한 문학작품 하나 지어지지 않았다. 과연 역사가 무슨 역할을 한단 말인가. 문학은 제 몫을 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후대의 연구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고, 지도 몇 군데 선을 긋고 점을 찍는 일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400년 전 사건 앞에서 우리 몇몇 연구자의 무거운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는다.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이렇게 말했다.

문자화된 과거의 메시지는 왜곡되고 절단되고 찢기고 상실된 매우 부실한 상태로 우리에게 도달한다. 우리에게 도착한 것은 찢어진 조각일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회복할 수 없이 상실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⁴²⁾

42) 알라이다 아스만(Alleida Assmann), 『텍스트, 흔적, 폐품 - 변화하는 문화적 기억매체들』, 하르트무트 뵈메 외, 윤희미 옮김(2008), 『문학과 문화학』, 한울에서 재인용.

<參考文獻>

- 李民奐, 『柵中日錄』 / 『忠烈錄』 / 『奉天通志』 / 『山中間見錄』 / 『光海君日記』 / 『遼海丹忠錄』 / 『皇清開國方略』 / 『明史紀事本末』 / 『欽定滿洲源流考』 / 桓仁縣公署(1937) / 『桓仁縣志』 (桓仁縣地方誌編纂委員會, 1996) / 『桓仁縣志』 (方志出版社) / 『柵中日錄 校釋』 (遼寧大學 歷史系, 1978)
- 고윤수(2004), 「광해군대 조선의 요동정책과 조선군 포로」, <동방학자> 123, 연세대 국학연구원, pp.41~97.
- _____ (2006), 「李民奐의 『紫巖集』과 17세기 조선의 遼東문제」, <북방사논총> 6, 동북아역사재단, pp.125~151
- 권혁래 · 신춘호 외(2015), 「심하전투 서사의 문학지리학적 고찰-문학지도와 경관, 서사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1, 우리어문학회, pp.127~173.
- 김일환(2019), 「明將 喬一琦의 죽음으로 본 深河戰役」, <열상고전연구> 68, 열상고전연구회, pp.77~122.
- 박현규(2019), 「姜弘立 조선군의 深河 참전지리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63, 한중인문학회, pp.101~127.
- 양승민(2005), 「<遼海丹忠錄>을 통해 본 명청교체기의 중국과 조선」,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pp.93~119.
- 이송희(2009), 「김응하 『충렬록(忠烈錄)』 판본 변개 과정과 그 의미」, <儒學研究> 46, 충남대 유학연구소, pp.129~159.
- 이승수(2003), 「深河戰役과 金將軍傳」, <한국문학연구> 2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pp.23~53.
- _____ (2007), 「심하전역의 현장 답사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41,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227~362.
- 중세사료강독회 옮김(2014), 『柵中日錄-1619년 심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 서해문집.
- 하르트무트 뵈메 외, 윤미애 옮김(2008), 『문학과 문화학』, 한울.
- 한명기(1995), 「光海君代の 對中國 關係-後金문제를 둘러싼 對明關係를 중심으로

로], <진단학보> 79, 진단학회, pp.93~134.

劉彥紅(2012), 「薩爾滸大戰與本溪」, 『滿族研究』.

李學成(2010.8), 「深山中的建州女真遺址」, 『蘭台世界』, 遼寧社會科學院歷史所.

武國卿(2016), 『中國戰爭史 7』, 人民出版社, pp.52~71.

傅波·王平魯·張德玉(2012.3.4), 薩爾滸戰役北路·東路戰場遺跡考察紀實, 『撫順七千年』, http://www.fs7000.com/news/kaogu/201203/1149_8.html

王雁(2011.3), 「明末女真在遼寧地區興修的城寨及發展特點」, 『蘭台世界』, 遼寧社會科學院歷史所.

王從安(2001.9), 「桓仁縣境最大的古戰場 - 細說薩爾滸大戰的東線之戰」, <滿族研究>, 2001 제3기.

王從安(2007.9), 「棟鄂部研究」, <滿族研究> 2001 제3기.

『建州女真』 제6집, 「歲月風雲」, 2012.11.

이 논문은 2019년 8월 10일 접수되어 9월 10일까지 심사받아 9월 30일 발행

■ ABSTRACT

A Historical Research on Unresolved Geography of Shimha Battle
in 1619

Lee, Seang-su / Kim, Il-hwan, Shin, Chun-ho / Lin, WenxIng

This paper summarized the detailed historical research results on the geographic data of a certain section in the battlefield of Sarhu broke out in March 1619. The relevant section is from ‘Pingdingshan Mountain’ from which 13,000 Joseon soldiers started marching in Niumaoling pass to about 40 km out of Hetualacheng fortress where about 4,000 to 5,000 Joseon soldiers who survived in the battle stayed as prisoners. In this geographic space did the tragic event occur for 8 days from Feb. 28 to Mar. 6, which was not too much to take a lesson for a long time and was very piercing when it was reviewed even today, 400 years from that time. However, the event was nearly forgotten by incompetent power and even moral meaning as well as tremendous pains were lost. This paper aims to remind the tarnishing history and furthermore provide the opportunity to ruminate the history by accurately criticizing and correcting the place of such tragedy.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field investigation as well as field survey, several new information was acquired. In spite of field trips twice, the old Niumaoling pass couldn’t be perfectly reconfigured. However, this paper made definite progress for thorough reconfiguration through the further study. The theory of Wangcongan(王從安) was applied to several spots including Niumaoling Pass. It was identified that ‘Shimha’ would be the village name not the river through the records in documents. It was newly identified that 8,000 to 9,000 Joseon soldiers died and remaining 4,000 to 5,000 Joseon soldiers escaped to Pushan Mountain and the field near Pushan Mountain. Such result is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of this paper. Moreover, the detailed ground for argument and opinions on prisoners' path of movement which was not discussed in detail up to now were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Pain and grief generated by this battle are still talking to us up to now, even 400 years since then. Furthermore, the incompetence and hypocrisy of the power who forgot and ignored this battle are still tormenting people as they were. This paper was prepared to listen to what pain and grief wanted to say and to face up to incompetency and hypocrisy.

※ key-words: Niemaoling Pass, Shimha, Pushan Mountain, Bucha Field, Gahapryeong Pass, Yi Min-hwan, Chaekjungillok(Prisoner's Dairy by Yi Min-hwan)